

## 설화 읽기에 대한 반성적 고찰

김 경 섭\*

### 1. 설화 읽기의 문제

설화라는 텍스트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 근래에는 모든 텍스트를 결과물로 보지 않고 상호적이고 소통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지만, 설화는 일부러 그런 경향에 맞춰 다룰 필요가 없다. 원래부터 이야기 연행은 그 과정 자체가 텍스트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설화는 연행하는 사람과 연행된 이야기는 물론 그 맥락까지도 통합된 텍스트로 취급해야 한다. 설화 텍스트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설화에는 정전이나 선본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이본의 변화가 극심한 양상을 드러낸다. 설화의 이런 속성 탓에 구비문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완벽한 텍스트를 상징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 의의도 매우 취약한 것이다.

반면 오히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텍스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포착하는 것이 구비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화 연구는 완벽한 서사의 이상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따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설화는 항상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말로 전승되거나 글로 전해온 이야기들에는 인간이 지표로 삼아야 할 숭고한 교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 수많

은 세월을 거쳐 아직까지도 특정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설화에 순진무구한 교훈성이나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 구연 현장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세련되고 정제된 것들 보다는, 왜곡되고 변질된 채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구연자의 엉뚱한 해석까지를 설화 텍스트 범주에 포괄시킨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 글은 그 동안 우리가 설화를 읽으면서 지나치고 말았던 부분들을 점검함으로써, 설화 읽기 내지는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에는 수많은 담화 주체<sup>1)</sup>가 존재한다. 작가나 독자 혹은 이야기 구연자나 청중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전달 될 때 참여하게 되는 여타의 주체들도 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층위의 담화 주체를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주체이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전승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이들은 존재론적인 이질성을 넘어 텍스트 의미 산출에 어떤 방식의 간섭을 행하게 된다. 적층과 구전을 생명으로 하는 설화의 경우 이런 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야기의 생성과 전달에 주로 관여하는 주체는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이야기 전승의 주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간 설화연구는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다.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설화 연행의 현장성을 보존하여 연행 현장의 여러 요소들이 텍스트 의미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게 되는지를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야기 전승의 주체인 화자나 청중을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곧 현장론적인 설화 연구의 어

- 1) 여기서 '담화 주체'란 텍스트를 소통상황의 어떤 것으로 상정했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특정 이야기가 소통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화자, 텍스트, 콘텍스트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이야기 전승 주체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설화 연구에서 이야기 화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의 화자 연구는 화자가 구연한 텍스트와의 상관성이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화자에 의해 특정 이야기가 변조되거나 상이한 해석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려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문자로 된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구비문학의 텍스트 분석이 얼마나 독자적인가, 즉 구비문학을 구비문학으로 취급한 분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장의 맥락을 잃어버린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설화라는 장르가 지닌 '말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행론의 여러 방법론들이 시론적으로 사용되거나, 언어학적인 명제들을 이용하여 설화 연행의 텍스처(texture)가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설화의 구술성과 현장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임은 틀림없다.

본고 역시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구연 설화 혹은 문헌 설화에서 텍스트 내·외부의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 의미 산출에 기여하는지를 살펴서 설화 해석에서 간과되어 왔던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설화가 이야기꾼에 의해 연행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설화텍스트에서 단지 읽히는 의미만이 아닌 만들어지는 의미도 존중되어야 한다. 문헌 설화의 경우도 담화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구현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화 편찬자의 편찬 의도 역시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 구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글로 기술하는 행위도 콘텍스트를 통한 텍스트 형성과정<sup>3)</sup>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헌 설화나 구연 설화 모두 구연자나 편찬자에 의한 텍스트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그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이야기 전승 주체가 이야기 내용과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 그간의 설화 읽기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었던 지점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sup>4)</sup>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구연 설화와 문헌 설화로 나누어 설화에

나타나는 해석의 문제점을 거론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설화 해석의 모든 문제점들을 체계화할 수는 없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설화들을 예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거론하는 텍스트는 구연 설화의 구연자와 문헌 설화의 편찬자 측면을 효과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선택된 것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수많은 설화 텍스트에서 구연자와 편찬자의 측면을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다수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설화 읽기에 있어서 축소되거나 혹은 소외되었던 측면들을 반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설화 읽기의 일반적 논점으로 더 거론할 것이 있다면 구비문학 내에 존재하는 口述과 記述의 측면을 어떻게 해석이나 분석에 반영할 것인가 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구연 설화의 경우 텍스처 층위에 대한 분석이, 문헌 설화에 대해서는 텍스트 층위의 분석이 시도될 것이다. 이는 일면 문제가 있는 분석으로 보일 수 있다. 분석의 층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야말로 구비문학이 口述과 記述의 두 가지 문화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한다. 口述과 記述의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서로 다른 텍스트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분석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2. 이야기 구연자의 측면

### 2.1.

설화는 현장에서 구연되는 이야기와 문헌으로 전승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현장 구연 이야기의 화자가 구연자라면 문헌 전승 이야기의 화자는 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연구는 별도의 논의로 할 수 있는 작업이며,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전승 주체로서의 구연자나 편찬자를 설화 해석의 주요 요인으로 적극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야기 내용과 이야기 전승 주체 간에 발생하는 괴리와 어긋남의 문제가 왜 거론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주목적인 셈이다.

3)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월인, 2003. 55쪽.

4) 가령 구연 설화의 경우 동일한 이야기가 성별, 지역별 혹은 연령별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작업일

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헌 전승에서는 서술자라는 담화 주체 말고도 편찬자라는 또 다른 담화 주체가 존재한다. 그는 이야기 세계 밖에 존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는 구연 설화의 이야기 구연자와 비슷하지만, 이야기를 현장에서 창조하고 있기보다는 독자와 시·공간적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구연자와는 이질적이다. 본 장에서는 그간 설화 분석이나 해석에서 소외되었던 설화 구연자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앞서 설화 연구는 서사의 완벽성이나 텍스트의 완결성 등을 연구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거니와, 아마도 화자와 이야기의 상관성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리라 판단된다. 다음에 소개하는 女智설화가 그 예이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강자인 남성의 여성에 대한 시각의 편협성은 양자 간의 관계를 굴절시키며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제한한다. 실제로 남성 중심 규범의 균질함을 권위로 삼아 쉽게 약자로서의 여성을 조롱거리로 삼는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한다.<sup>5)</sup> 여기서 구연 설화로 다룬 이야기들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혜가 발현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중차대한 문제적 사건의 해결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혜가 설화를 구성하는 콘텍스트에서 어떤 긍정적인 대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화 내부의 사건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관련성과는 별도로 전승 주체의 구연에서는 전혀 색다른 발화가 드러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자료 1 : 『구비문학대계』 1-3 안병만(남, 55세), <구렁이의 보은> p.461.

- ① 어떤 부부가 40이 넘어 아들을 낳는다.
- ② 아이가 서당에 다니면서 자신의 점심으로 구렁이에게 밥을 먹인다.
- ③ 아이가 어머니와 서당에 변명을 해가면서 10년 동안 구렁이를 계속 먹인다.
- ④ 아이가 장성해 결혼하려 신부집에 가는데 구렁이가 길을 가로막으며 넓적다리를 깨물고는 꼬리로 바닥에 글씨를 쓴다 '군지금일취저시 불침동금창변○ 춘경혹임일승시 추수동장십오두(군이 오늘 장가들러 가서는 창가에서 자지 말라, 봄에 참깨를 한 되 심었더니 가을에 가서 열다

- 섯 말이 낳더라)'
- ⑤ 뒤의 두 구절을 풀지 못한 채 신부집에 도착한다.
- ⑥ 신혼 첫날밤 신부는 살해당하고 주인공은 창가에서 자지 않아 죽음을 모면했지만 살인자로 몰린다.
- ⑦ 구렁이가 써준 뒤 구절의 풀이를 부탁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고을 원님이 풀지 못한다.
- ⑧ 원님의 외동딸이 '임두리'라는 사람 이름으로 풀이해 낸다.
- ⑨ 동네의 절 주지 중 임두리라는 자가 있어 새신부가 처녀 적에 자주 만나 사통했었는데 그녀가 결혼하게 되는 걸 알고 신랑을 죽이려다 신부를 잘못 죽인 사연이 밝혀진다.
- ⑩ 고을 원님의 딸과 그 아들이 결혼한다.

이 이야기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⑦~⑩이라 하겠는데, 사건의 심각함이 부각되고 그에 비례해서 여성의 지혜 역시 부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설화의 스토리 차원에서 엿보이는 이야기 의미일 뿐이다. 우리가 설화를 접할 때 이야기 내용의 순차구조만을 분석한다면 이 이야기를 여지가 강조된 설화 중 하나라고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관점은 현장의 입김과 연행 주체의 세계관이라는 콘텍스트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어떤 말투와 어떤 발화 양식으로 구연이 이루어졌는지를 무시한 결과이다. 원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문제 풀이에 골몰하지만 해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부터가 이 이야기의 절정이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딸이 등장하는 대목은 실제 구연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전략)...원님이 날이 새두 한낮이 돼두 문을 열라구 진지 잡수시래두 안 나오구 뭐래두 안나오구. 그런데 외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딸이, 안양을 땄면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진지 잡수시라는데 왜 그러세요. 왜그러세요?" 울면불면 야단을 쳐두 "너는 알 거 없느니라" ... (중략) 딸이 '임두리'라는 사람 이름으로 풀이해 내고 범인을 잡는다... 그래 고을원에 딸한테 장가 들러요

이 이야기는 동물 보은담과 수수께끼담, 여지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

5) 정윤숙,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 대결담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0, 12쪽.

기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님의 딸이 범인을 지목하고 잡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는 딸이 범행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인의 위치가 사방 20십리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해 내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여지의 가치에 비해 구연자에 의한 여지의 인식은 인식하다 못해 굴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⑦에 이르는 비교적 긴 전반부가 지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 ‘아양’을 떨면서 나타난다는 표현에서 구연자가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전승 주체와 이야기의 내용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구술되는 설화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현상이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야기 내용과 구연자의 세계관이 충돌한 결과가 구연자의 발화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술 서사물의 경우, 작가에 의해 기술된 담론은 기본적으로 작가 개인의 콘텍스트로부터 텍스트화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야기 표면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발화 지표들은 작가의 콘텍스트와 텍스트화의 방향 사이에 어떤 어긋남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구연에서는 이런 현상이 흔히 발생하게 된다.

이야기가 여지의 발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야기도 결말을 맺고 있기에, 문제의 해결자로서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주체로서 여성이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내용이 중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투와 발화가 구연자에게서 엿보이는 것이다. 이는 설화 구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발화에서 이런 점은 가중된다. “그래 고을원에 딸한테 장가 들더래요.”라는 마지막 발화에서는 구연자가 등장인물 중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전략) 원님의 딸이 범인으로 몰렸던 남자에게 시집가려한다… “그 무슨 애기냐? 그 신랑 좀 흠이 있는 사람이다. 거 벌써 첫날 저녁에 여편네를 그렇게 그냥 끄적하게 죽인 놈이 흠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팔자 사나운데 니

가 왜 고명딸이 거긴 왜 갈려고 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천생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정절이라는게 몸만 가지고 정절이 아니라, 마음 가지구 정절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남자를 위해가지고 …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뒀다가 딴 데로 간다는 것은 변절입니다. 죽던지 살던지 허물없는 팔자던지 내 팔자가 그렇고 아버님 팔자가 그런 줄 아시오. 난 그리고 시집가겠소”  
고 그래 고을원에 딸한테 장가 들더래요.

구연자는 직전까지 딸의 말투를 직접 옮기다가 최종 발화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자의 입장으로 돌변한다. 이 장면은 사건이 해결되고 난 후 딸이 누명을 썼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을 구연자가 연행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딸과 원님의 대화상황이 구연자의 입으로 재생되고 있는데, 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이 위와 같이 구연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래 그 남자한테 시집 가더래요’라고 말하는 것이 구연 상황의 논리상 더 어울릴 법한 이 장면에서 갑자기 구연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 버린다. 지금까지의 구연은 어디까지나 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관심은 언제나 남자 주인공의 결말에 있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발화인 것이다.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 이야기를 구연했는지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이야기 내용과는 별도로 화자에 의해 색다른 해석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2 : 「구비문학대계」 1-1 서안열(남, 70세), <장한영을 살린 금낭-黃·白·三> p.81.

- ① 장한영이란 시골 사람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짐을 친다.
- ② 서울에 온 장한영이 보쌈을 당해 김정승의 집에 잡혀 오게 된다.
- ③ 김정승의 딸이 과부가 될 팔자라 장한영으로 하여금 액막이로 삼아 죽이려 한다.
- ④ 김정승의 딸이 도와 죽음을 면하게 된다.
- ⑤ 장한영이 과거급제 한다.
- ⑥ 허위장이라는 사람과 김정승이 장한영을 사위 삼으려고 서로 싸우게

된다.

- ⑦ 허위장의 딸이 나이가 한 살 많아 장한영이 허위장의 집 사위가 된다.
- ⑧ 결혼 첫날밤 신부가 살해당하고 장한영이 살인 혐의를 입게 된다.
- ⑨ 장한영이 과거보러 올 때 짐을 친 것을 확인해 보니 노란 종이에 흰 백자 세 개가 씌어져 있었다.
- ⑩ 김정승의 딸이 황백삼(허위장의 딸과 정을 통합)으로 해석하여 살인자를 잡게 된다.
- ⑪ 장한영이 김정승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

이 이야기 역시 자료 1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지가 발견된 수수께끼담의 일종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김정승의 딸이 범인을 색출해 내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실제 구연 상황에서는 약자로서의 여성, 그것도 어린 딸이 문제 상황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구연하는 화자는 주인공에 대해 그런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 ⑨~⑩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연자의 다음 발화는, 이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는 화자가 이야기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엿보이게 한다.

...(전략)... 그런데 그 때 시관이, 인자 김정승이, 임금어, 시관이거등요. 인자 그 글 가르는 시관인디, 이 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걸 해리 못하니,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라는데 그 즈그 딸이, 열 여섯 살 먹은 딸이 그걸 보더니,

“아 그거 내가 해결한다고, 이 노란 종이는 이 뭐시 노란종이는 성은 황가요, 황가. 누루 황자 황가고, 흰 백자 셋은 황백삼이, 백삼이. 황백삼이가 그걸 죽였소, 인자 그걸 알려줬어요, 황백삼이가.”...(후략)... 그래 장한영이는 인자 그 누명을 벗고 그 김정승 딸한테로 인자 장가를 가고 이러저러하고 잘 살았다.

이 설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인 여인의 비중이 비해 구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취급은 매우 우연적이며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2>는 설화가 전승될 때 구연자 개인의 성적인 콘텍스트가 이야기 구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게 되는지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수수께끼담류나 여지담에

나타난 여인의 지혜는 초월적인 어떤 것을 해석함으로써 발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료 2와 같이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단서로 제공되는 것이 점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성 등장인물이 구멍 뚫린 버들잎을 보고 살인 사건의 살인범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점복은 초월적인 어떤 것과 관련되고, 버들잎은 인위적인 메시지가 전혀 없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런 메시지를 해결하는 여성의 능력은 더욱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 구연에서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위의 이야기에서 구연자는 여인의 지혜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어떤 뒤토스가 구연자의 세계관과 충돌하여 발생한 텍스트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문제는 그렇다면 이 설화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가에 있다. 구연된 설화의 줄거리만 놓고 본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설화 구연자의 위치와 성격을 설정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연구자가 핵심적인 줄거리만 추출하여 연구한다면 구비문학이 구비문학이 아닌 게 되고 말 것이다.

## 2.2.

위의 예는 화자가 이야기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이나 주석을 덧붙

6)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더 거론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자의 텍스트화일 것이다. 조사자의 텍스트화는 이야기의 제목에 엿보인다. 이 두 이야기의 표제 <구렁이의 보은>과 <장한영을 살린 금낭>이 채택되었는데 과연 이런 표제가 이야기 내용과 부합하는가, 혹은 이야기의 본래의 내용을 왜곡하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콘텐츠 관련 작업들이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 설화의 표제가 이야기 내용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표적인 조사 업적물 중의 하나인 『구비문학대계』 전반을 대상으로 이야기 내용과 표제 사이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텍스트화는 구연설화의 구연자와 더불어 설화 채록시 조사자의 텍스트화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후 다루게 될 문헌설화의 편찬자까지 그 층위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조사자의 텍스트화는 비디오나 녹음 테이프 원본과 조사자가 채록한 문서를 비교해야 하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화자의 이야기 해석이 이야기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앞선 예보다 훨씬 그 예의 분포가 넓다고 하겠다. 그만큼 설화 연행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재단이 활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설화가 설화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기에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수많은 설화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내용과는 색다른 구연자의 해석을 설화 읽기의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최근에 조사된 이야기로 <자료 2>의 색다른 각편으로 파악되는 이야기이기에 흥미롭다. 실제로 수많은 종류의 수수께끼담 중에는 위에 소개한 두 이야기의 각 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각편마다 다른 텍스트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 이야기는 서사적 장치가 좀 더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 자료 3 : <백 냥짜리 점과 현명한 여인>, 박철규(남, 83세)<sup>7)</sup>

- ① 한 선비가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다가 복채가 백 냥인 신점을 보게 된다.
- ② 점쟁이는 선비가 과거급제 하지만 죽을 고비를 세 번 넘겨야 성공 한다고 말한다.
- ③ 첫 번째 고비에서 점괘대로 여자의 유혹을 잘 뿌리쳐 죽을 고비를 넘긴다.
- ④ 우의정 이정승의 딸이 과부가 될 팔자라 선비로 하여금 액막이로 삼아 죽이려 한다.
- ⑤ 이정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주인이 하인들을 시켜 액막이 삼을 사람을 구해오라 하고 하인들은 그 선비를 잡아 대령한다.
- ⑥ 이정승의 딸과 허룻밤 동침을 한 선비는 하인들에게 잡혀가 죽을 운명

7) 채록 일시 : 2006년 12월 20일, 채록 장소 : 청주 중앙공원  
 채록자 : 김중근, 김경섭, 심우장, 류호철(도심공원 이야기문화 조사단)  
 이 이야기를 구연한 박철규 옹은 상당한 정도의 이야기 목록을 보유한 훌륭한 구연자이다. 필자를 비롯한 조사단이 전국 각지에서 채록 작업을 벌이는 동안 몇몇 일급의 구연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박철규 옹은 단연 돋보이는 분이다. 그는 목록도 풍부하지만 구연 능력도 탁월하여 청중을 압도하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화자 연구로 발전시킬 만한 구연자이다.

- 에 처하게 되고 선비는 두 번째 점괘에서 알려준 대로 돈을 써 달아나게 된다.
- ⑦ 선비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게 되고 좌의정 김정승의 사위가 된다.
- ⑧ 첫날밤 김정승의 딸인 신부는 목이 잘려 살해되고 선비는 살인범으로 몰린다.
- ⑨ 사형장에서 선비는 세 번째 점괘가 들어있는 봉투를 제시하고 임금은 봉투에 적힌 의문의 글자 해독 임무를 이정승에게 부여한다.
- ⑩ 봉투 안에 쓰여 있는 '조일두미삼승'이란 문구를 해석하지 못해 이정승이 고민한다.
- ⑪ 이정승의 딸이 '조일두미삼승'을 '강철삼'으로 해석하고, 강철삼(김정승의 딸과 예전부터 정을 통했던 사람)은 김정승 집에서 오래 일한 하인으로 밝혀져 살인범을 잡는다.
- ⑫ 결국 이정승의 딸이 다시 선비에게 시집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자료 2>에 몇몇 화소가 첨가된 양상을 보인다. 우선 주인공인 선비의 위기가 세 번에 걸쳐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연속으로 극복한다. 구연자에 의한 텍스트화 과정에서 주인공이 위기를 겪게 되는 절차와 마지막에 범인의 이름 풀이 장면은 이런 종류의 수수께끼담에서 보이는 다양한 화소를 모아 놓은 면모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이 이야기의 화자가 이야기 구연에 매우 능숙한 점을 감안한다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담의 종합판 격이라 할 만하다. 박철규 옹이 앞의 두 이야기를 다 알고 이들을 혼합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야기 해석의 문제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이야기를 끝낸다.

아, 그래가지고 인제 고향에 내려가서 인제 인사하고 취직을 할라고 그라는디. 아, 이놈의 그 그렇게 되니까 이정승이 그 사위 삼는다는겨. 또 그렇잖어. 그 이정승은 먼저 그 딸하고 잔 집이여, 벌써 이미, 그 집이란 말이여. 근디 아무것도 모르지, 이놈도 모르고 서로 모르지. 아, 이놈이 장가라면 아주 겁이 나는데 인제는 봉투지도 다 써먹고, 써먹어서 없지. 또 잘못되면 죽는겨. 그래 할 수 없이 글루 장가를 가는겨. 험디 그 이정승 부인도 몰르고 아무

도 몰라. 그 신부되는 사람도 인저 생각도 못했고, 예를 갖춰서 신방을 차리  
는다. 아, 저녁에 그 신방에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얼굴을 들어서 쳐다  
봐, 신랑 얼굴을. 예전에 그렇게 있었어?. 아 쳐다보더니만 족두리를 자기 손  
으로 벗어서 '획' 집어 내버리더니

“아이구 서방님”하고는 끌어 안는겨. 알아보고, 하루저녁 잔 사람이여.  
[조사자: 같은 여자랑 두 번 결혼하네. 두 번] 아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여  
아, 그래 붙잡고 울은겨. 울고서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여자도 부명에 간  
거 그 다 때우고 오래 살고 그래서 아들, 딸 잘 낳고 베풀하고 잘 살더라고.  
그래 이 점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라고 점 아니었으면 헛일이여.

조사팀은 이후 자료집을 낼 때 이 이야기의 제목으로 <백 냥짜리 점과 현  
명한 여인>이 적당한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과거 길에 본 점이 선비를 살린  
결정적 구실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지막 위기에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한 여인이 담당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 이야기를 구  
연한 화자의 마지막 발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 이야기에 보이는 선비의 기지  
나 여인의 지혜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가 내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점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적인 내  
용을 점복으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야기 주제가 구연자의 생각과  
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료 3>의 경우,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  
제와 화자가 생각하는 주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고 하겠다.<sup>8)</sup>

그런데 실제 연행 현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전승되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  
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화의 전승 맥락에서 화자의 역할이란 우리가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령 비교적 잘 짜

8) 이 경우 설화 구연자는 조사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을 강조한 셈  
이지만, 정작 설화 연행의 현장에서는 그의 그런 실수가 실수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에 꼭 빠져 있는 청중들은 그가 내린 결론적인 언사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반복될 것이다. 반  
면 박철규라는 화자 개인의 콘텍스트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도 생긴다. 그의 생애  
에 있어서 점복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본래의 이야기  
내용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게 되는 이유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  
이다.

여 안정된 서사적 틀거리를 지닌 이야기라 할지라도 화자에 의한 구연 과정  
에서 <자료 3>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지점에 가서 전혀 색다른 판  
본이 생성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그런 현장을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  
렵지만 수많은 설화의 화소들이 이리저리 재배치되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  
을 염두에 둔다면, 설화의 전승 맥락에서 화자와 이야기 내용의 어긋남은 매  
우 증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설화에 내재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  
는 뒤토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서 구연하고 전달하는 연행  
주체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데 있다.

구연 설화의 경우 그것이 창조의 충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은 전달과 재창조의 충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 현장이라는 맥락 역시 구연  
현장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설화의 구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텍스트에 구연자 개인의 콘텍스트가 더해져서 설화는 연행되는  
데, 이 과정에 대한 정교하고도 세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한다.<sup>9)</sup>

### 3. 이야기 편찬자의 측면

#### 3.1.

구연이 현장의 맥락에 매우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설화 연행의 제  
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유능한 화자는 물론 성실한 청중도 필요  
하기 때문이다. 청중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날의 뉴스에 따라 각기 다른 구  
연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과 목록을 보유한 화자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화자가 구연할 때 적절한 추임새로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적당히 구연에  
참여하기도 하는 청중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설화문학의 나머지 한

9) 설화 교육의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재 교과서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줄거리를 보유한 설화 각 편이 소개된 실  
정인데, 설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학생들에게 심본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연자의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헌 설화의 경우는 이런 제약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술문학과 유사성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문헌 설화의 경우에는 구연 설화와는 다른 양상의 문제가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편찬자에 의해 이야기가 선택되는 과정을 일차적으로 언급할 수 있으나 재구되기 어렵다. 어떤 이야기가 선택 혹은 배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택된 이야기들의 성격으로부터 이른바 ‘편찬의식’ 내지는 ‘편찬태도’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미 선택된 이야기들은 편찬자의 선택 기준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므로 전승 주체에 의한 텍스트화의 일단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으로 그동안 야담집이나 여타의 문헌 설화집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본고에서는 선택된 이야기들이 편찬자에 의해 다시 텍스트화되는 흔적을 보이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구연 설화의 경우에는 창작 주체가 이야기를 창조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전승의 주체가 전달과 재창조의 목적으로 현장에서 구연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달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텍스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구연된 설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반면 문헌 설화의 경우에는 창작의 주체는 아니지만 현장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난 전승 주체가 자신의 의도대로 설화를 ‘편집’할 가능성이 열린다.<sup>10)</sup> 따라서 문헌 설화에서는 구연 설화에서처럼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문헌 설화에서는 텍스트화 자체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 고도로 고안된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그런데 기존의 설화 읽기에서는 이

10) 설화를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령 예조사실이 예조담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논의는 문헌 설화의 이런 속성을 잘 보여 준다. (황인덕, 義慈王말기 亡國豫兆기사류의 豫兆談적 성격 一考,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6).

11) 이와 관련하여 ‘궁예전승’의 문제가 거론 될 만하다. 일연은 유독 『삼국유사』에 궁예 이야기를 누락시키고 있는데 그 지점이 매우 흥미롭다. 그가 권 2에 〈후백제 견훤〉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많은 부분 궁예 이야기가 실려 있던 『삼국사기』를 참고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분명 〈궁예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연은 『삼국사기』에 실린 견훤과 궁예 중 한 명만을 선택하여 『

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연이 구분하고 명명한 표제와 그 부속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그 상관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표제명과 부속 이야기의 어긋남을 확인하여 편찬자의 또 다른 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는 王曆·紀異·興法·塔像·義解·神呪·感通·避隱·孝善의 5권 9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 권의 변별력이 별로 없으므로 5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9개의 편목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sup>12)</sup> 그런데 세부 편목들을 엄두에 두고 이야기들이 어떤 편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핀다면 좀 더 적극적인 설화 읽기의 면모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기서의 문제의식이다. 아래에 소개된 〈피은〉편의 두 이야기는 같은 편목 내에 속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다.

○ 자료 4 : 『삼국유사』 권5, 〈避隱〉편, ‘연회도명문수점’

고승 연회는 일찍이 영취산에 숨어 살면서 불법을 닦았다. 고려왕 원성왕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불러 국사로 삼고자하자 그는 도망쳤다. 그는 도망치는 도중에 한 중을 만났는데 중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연회는 나라에서 잘못 듣고 자신을 관직에 봉하고자 하여 피해 도망한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중이 “이곳에서도 장사 할 것이지 왜 먼데서 팔려고 수고하십니까? 스님이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고 말한다. 연회는 자신을 업신 여긴다고 생각하여 몇 리를 더 가다가 노파를 만나는데 그녀는 방금 연회가 만난 노인이 문수보살이라고 알려 준다. 연회는 그제 서야 깨닫고 그 노인에게 돌아가 사과한다. 그 노파는 변재천녀였다. 연회는 진작 받았어야 했을 임금의 명을 받고 국사로 봉해진다. 연회가 노인에게 감응받은 곳을 이름하여 문수점이라 하고, 노파를 만난 곳을 아니점이라 했다.

○ 자료 5 : 『삼국유사』 권5, 〈避隱〉편, ‘물계사’

신라 제10대 내해왕 즉위 17년에 주변의 여덟 나라가 합세하여 침공해왔

삼국유사, 편찬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편찬자 일연에 의한 『삼국유사』 텍스트화의 일단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이다.

12) 박진태 외 5인 공저,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66-68쪽.

다. 왕은 태자 내음과 장군을 보내 막게 했다. 이때 물계자의 공이 으뜸이었는데도 태자에게 미움을 사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계자는 임금의 지위와 지사의 의리를 중히여겨 그 상황에 복종했다. 내해왕 20년에 주변의 세 나라가 신라의 변방을 치자 왕이 친히 나아가 이를 물리쳤다. 이때에도 물계자의 공은 단연 으뜸이었는데도 상을 받지 못하였다. 물계자는 불충과 불효의 예를 상실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 하에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메고 사체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 숨어 다니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피은〉편의 편목이 가진 뜻은 ‘避世隱居’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 피은은 난세에서만 아니라 어느 때건 지식인이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처신 방법으로 널리 알려졌다.<sup>13)</sup> 북한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삼국유사』 해석본을 보면 ‘피은’을 ‘도피와 은퇴’·‘피해서 숨음’·‘도망가 은폐함’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은〉편 설화 중 하나인 ‘연회도명문수점’은 속세를 피하여 숨는 행동을 취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물계자’와는 다른 내용을 보인다. 연회는 피하여 숨거나, 도망하여 은폐하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도리어 ‘피은’이 ‘숨는 것을 피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회의 숨음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행위라는 문수보살의 지적은 그의 행동이 그 당시의 문화적 맥락 하에서는 매우 유평적<sup>14)</sup> 행동이기 때문이다. 왕

13)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186쪽.

14) 유평적이라는 말과 무표적이라는 말 속에 이미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나 상황을 유평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맥락 하에서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거나, 일탈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의복의 유행에서 잘 드러난다. 의복의 유행은 흔히들 돌고 돈다고 한다. 어느 때는 어떤 식의 복장이 유행이 되고 어느 때는 유행이 되지 않는다. 일단 유행이 된 이후의 그 복장은 무표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평적인 의복을 따라 입게 되지 않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의복은 점점 무표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 지점은 유평성의 통시성 무표성의 공시성과 만나는 지점이며, 이때 사람들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예전에는 유평적이었던 의복을 즐겨 입게 된다. (이런 면에서 ‘요즈음 유행하는 ...’이라고 말하는 모든 문화 현상은 사실 우리의 문화생활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유평적인 것에서 무표적인 것으로

의 칙명은 모든 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공식적으로 상층 계층으로의 편입을 인정받는 일이다. 이러한 최대의 세속적 인준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평적 행동이며, 따라서 세인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더욱 우러러 보게 된다. 여기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치성과 권력성을 띤 것이므로 종교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어떤 것이다. 그렇기에 고승 연회는 종교적 맥락 하에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숨으면 숨을수록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 出處의 속성이기도 하다. 연회는 세속적 출처관의 이런 측면을 초월하지 못했다. 문수보살은 세속적 출처관을 초월하지 못한 연회 앞에 나타나 빈정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회는 숨지 않는다. 문수보살의 충고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런 그의 행동은 왕의 칙명을 충실히 따랐기에 세속적 맥락 하에서는 매우 보편적이고 무표적인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연회’ 이야기는 〈피은〉이라는 표제에 맞지 않은 이야기로 비취질 수 있는 것이다.

물계자의 경우 그의 숨음은 세속적 맥락 하에서는 유평적 행동일 수 있다. 세속인이 ‘관계단절’을 자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권위를 지닌 인물이나 계층으로부터 공식적인 능력의 인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일은 세속적인 인간이 쉽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세상의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다. 즉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무표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등지고 숨어 버린 물계자의 행동은 매우 유평적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회의 행위가 무표적이고, 물계자의 행위가 유평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도, 문화적인 맥락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적 맥락 하에서는 속세를 버리지 않는 연회의 행위는 유평적이며 속세를 버리는 물계자의 행위는 무표적이다. 연회의 행동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 불

막 바뀌기 시작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98-199쪽 참조).

도를 위해 정진하는 불승들의 세계에서는 매우 특출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는 물계자의 행동은 불법을 공부하고 세상의 번뇌를 고민하는 불승의 눈에는 유표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속세를 피한다는 행위는 불승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행동인 것이다.

『삼국유사』의 편자인 일연의 편찬 태도는 흥법3 이하 효선9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관련된 것이며, 일면 불법의 위대함과 그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회의 행동은 불교적 관점에서 유표적이며, 세속적·문화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어서 그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불교설화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불교의 수많은 화두를 세속인들이 이해하고자 할 때, 그 화두에 얽힌 일화가 중요시 되는데 그 이유는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세속적인 논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설화 중에는 종교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지만 세속적 관점에서는 유표적인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연회의 이야기는 특이하다.

반면, 물계자의 경우 그의 행동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무표적이며, 세속적·문화적 관점에서는 유표적이다. 즉 일연은 연회 이야기에서는 불승으로서 유표적인 사례를, 물계자 이야기에서는 일반인으로서 유표적인 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어떤 인물 또는 상황을 유표적으로 꾸며내는 일련의 작업으로 상정한다면 연회의 이야기는 불교적 맥락을 중심으로, 물계자의 이야기는 세속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연회는 불승이고 물계자는 세속인이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한 귀결점이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다.

		연회	물계자
'피은'의 해석		숨는 것을 피함	피하여 숨음
유표/무표성	세속적 맥락	무표적	유표적
	불교적 맥락	유표적	무표적

결과적으로, 위 두 편의 설화에서 불승이 세속인처럼 행동하고, 세속인이

불승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성립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한다면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불승이 관계 맺기에 치중했고, 관계 맺기에 열중해야 할 세속인이 관계를 단절했기에 흥미있는 이야기가 성립한 것이다. 일연은 무슨 의도로 이 두 사건을 동일한 편목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여 서술하고자 했을까? <피은>을 도피하여 숨는 것으로만 해석했던 설화 읽기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분명 서로 다른 방향의 피은이 발생했으니 합당한 해석을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일 시대에 있어서 유표성을 달리 하는 두 행동이 같은 가치를 표방함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서로 다른 행동이 함께 속할 수 있는 상층의 관념이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국유사』 <피은>편은 텍스트 해석 상 상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연에게 있어서 인간이 처한 공간의 문제는 그 인간 자신의 의지와 관념에 비해 매우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즉 어느 공간이든지 인간의 욕망을 실현 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전제가 그에게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승 연회는 숨음으로써 더욱 드러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깨닫고 현실 공간을 인정하게 되며, 물계자는 개인의 진정성과 현실사이의 간극으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의 해소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도 추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두 이야기에서 종교적, 세속적이라는 맥락 하에서의 일반적인 출처관이 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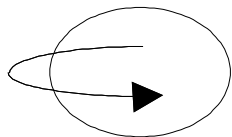
인물의 공간 이동은 설화 공간의 설정을 전제로 한다. 설화의 인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공간을 갖는데, 이 공간은 그들의 본질적 특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상적 인간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닌 인물의 공간은 지상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공간들 가운데 닫혀 지거나 범주화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공간을 내적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러한 내적 공간과 대립되는 공간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은 열려 있거나 범주화될 수 없는 공간으로서, 이는 곧 외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과 공간과의 이러한 관계를 간단히 하자면 '안'과 '밖'에 대한 인간의 관념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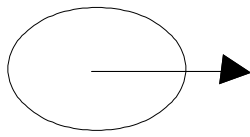
'안' 즉 내부 공간은 '우리의 것', '나의 것'이며, '안전한', '조화롭게 조직된' 것들이다. 반대로 '밖' 즉 외부 공간은 '그들의 것', '위험한', '혼돈스런', '반대의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듯 '내/외'의 양분론에 의한 구분은 곧 가치의 양분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야기 등장인물과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야기가 드러내는 공간 인식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문화적 의미도 구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15)</sup>

연회는 애초에 인간 세계 바깥의 외부 공간을 지향한다. 그에게 속세 즉 내부공간은 그의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공간이며, 세속의 공명과 부귀는 그에게 있어서 불법을 정진하는데 장애물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연회는 문수 보살이라는 초월계의 존재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다시 내부 세계로 돌아오게 된다. 물계자는 충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려 애쓴 인물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합리적인 평가만이 돌아온다. 그는 그에게 돌아오는 비합리적 평가를 그대로 수긍하며, 도리어 모든 결과를 자신의 불충의 소산으로 돌리며, 인간 바깥 세상인 외부 공간으로 나아간다.

15) <피은>편 설화는 다음의 두 가지로 유형화 된다.



(연회도명 문수점)



(물계자)

<피은>편에 실린 10개의 이야기 중 유독 연회만이 외부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회 이야기의 특별함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편찬자의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인 배치의 혐의가 짙다고 하겠다. <피은>편에 속한 이야기들 사이의 관련성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회의 이야기에서는 내부 공간의 질서가 외부 공간의 이념에 지배당한다. 연회는 불교적 진리의 깨달음을 외부 공간의 조력자인 문수보살과 변재천녀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초월적인 것(외부 공간)이 지상적인 것(내부 공간)을 통합하는 양상이다. 연회에게 있어서의 내부 공간은 물계자의 그것과는 달리 버려야할 공간이 아니다. 도리어 자신의 욕망과 불법을 함께 실현할 공간인 것이다. 물계자의 이야기 역시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의 비합리성과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여기서의 외부 공간은 구체적인 힘을 발현하지 않지만 그런 공간의 존재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닌 것이다. 물계자에게 있어서 내부 공간은 버려야할 대상이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곳이다. 양자 모두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을 통합하며, 제어한다는 면에서는 상응하지만,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은 <피은>편이 인간이 몸담고 있는 내부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종교적으로는 계도의 대상이며 세속적으로는 버려야 할 어떤 속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시 물음이 필요하다. 일연은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배치했을까.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연은 인간과 세계와의 불일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문제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나간 것이다. 삼국유사 <피은>편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공간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일연은 '연회' 이야기를 고의로 <피은>편에 배치하여 출처의 문제, 공간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6)</sup>

16)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전승 주체의 의도성이 기술성이나 기술성 일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연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야기 내용과 전승 주체 간의 불일치'는 전승 주체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나, 문헌 설화의 경우에는 불일치 자체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도적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야말로 기술성과 기술성의 미묘한 차이가 문화적인 텍스트 산출에 영향을 미친 예라 할 수 있다. 즉 口述과 記述의 문화적 관습 차이가 이야기 전달 양상에 관여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독 세상으로 나아가는 연회 이야기는 <피은>편 내에서 가장 문제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편집자인 일연의 실수가 아니라 여겨지는 이유는 앞서 거론한 문제들 때문이다. 승려 생활이란 처음부터 숨음이기에 은거를 말하고 자 할 때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그것을 한 차원 넘고 시작해야 한다. 보편적인 불교의 사고방식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이분화의 개념은 무시된다. 만약 연회의 이야기가 누락되었다면 숨는 것이 숨는 것이 아니며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교적 진리를 <피은>편은 함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연은 편목 명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고도로 고안된 별다른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은>편은 물계자와 연회를 동일한 층위에서 살펴보는 불교적 콘텍스트를 생성시키게 된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과 세상을 등진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불교 특유의 변증법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피은'이 도피하는 것만 뜻하지 않고 숨음/드러남을 함께 내포할 수 있다는 일연의 불교적 콘텍스트가 이 이야기를 <피은>편에 포함시킨 것이다.<sup>17)</sup>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구연 설화나 문헌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자와 이야기' 혹은 '편자와 이야기' 사이의 불일치들을 논의하고자 했다. 설화는 정적인 장르가 아닌 동적인 장르이며,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성격의 것이기에

17) 이런 현상은 『삼국유사』의 다른 편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령 <기이>편의 경우에는 기이한 일도 마땅히 실을 수 있다는 일연의 편찬의식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지만, 정작 전혀 기이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이>편에 어떤 이유로 실렸는지는 적절하게 해명된 것 같지 않다. <기이>편을 비롯한 다른 편목들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별도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은>편의 다른 설화들과 '연회' 이야기의 관련성을 언급한다면 '연회'이야기의 특별함이 더욱 부각됨은 앞서 거론했거니와, 이후에는 『삼국유사』 전체의 편목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설화라는 텍스트가 변모해 가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중층적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설화에 대해 부여한 가치들이 얼마나 자의적인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설화가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장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특정 설화의 의미 역시 연행 현장에서 화자나 청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창조 된다는 점을 그동안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설화를 읽어 낼 때 텍스트화에 개입할 수 있는 복수의 콘텍스트를 최대한 의식했다 하는 문제제기와 동어반복이다. 다만 설화의 이런 측면이 설화의 문학 장르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설화가 이전의 낭만적이고 순백했던 고대의 장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직도 연행되고 있는 현재의 장르임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설화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다. 그야말로 설화가 설화일 수 있는 설화의 장르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다. 설화의 이런 점을 무시한다면 記述 텍스트 연구와 口述 텍스트인 설화 연구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연구 방법이 설화를 연구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설화를 설화답게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유효하고도 정당한 것이다.

문제는 설화의 의미 불확정성 내지는 변형성에 기여한 콘텍스트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읽어 낼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가령 우리나라 廣布설화의 경우, 해당 이야기가 왜 널리 퍼질 수 있었는지 그 광포성에 대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분포 상의 확대를 야기한 다양한 콘텍스트에는 정치·권력적인 콘텍스트에서부터 화자 개인별 콘텍스트까지 그 과정은 엄청난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포성을 띤 설화를 해석하면서, 의미의 지고지순함이 나 윤리적 도덕성의 가치로부터 그 광포성의 이유를 찾는 것은 설화라는 텍스트에 개입한 다양한 콘텍스트를 도외시킨 해석일 수 있다. 우리 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콘텍스트가 설화의 텍스트화에 개입한 흔적을 찾는 작업은 설화를 새롭게 읽기 위한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설화라는 장르의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향

상 변할 수 있고,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문제 제기 한 부분은 필자가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 1-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박성봉·고경식 역, 『역해 삼국유사』, 서문문화사, 1994, 1-396쪽.  
 리상호, 『삼국유사』, 과학원출판사, 1960, 1-634쪽.

### 2. 저서 및 논문

고운기, 『일연과 삼국유사의 시대』, 월인, 2001, 1-344쪽.  
 김경섭,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1-150쪽.  
 김현주, 『구술성과 한국서사전통』, 월인, 2003, 1-278쪽.  
 박진태 외 5인 공저,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1-463쪽.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1-357쪽.  
 정운숙,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대결담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0, 1-80쪽.  
 한국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의 연행자와 연행양상』, 박이정, 1999, 1-439쪽.  
 황인덕, 義慈王말기 亡國豫兆기사류의 豫兆談적 성격 一考,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6. 476-506쪽.

□ 이 논문은 2008년 3월 15일 접수되고  
 2008년 4월 10일 심사완료되어  
 2008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Reflective Contemplation on Reading Folk-tales

Kyung-Seop, Kim

It has been commonly thought that tales passed down to us by verbal and literal means have sublime lessons by which we should be guided and thus have been translated such as, Since they have survived so long ages, certain tales, we definitely guess, contain innocent lessons and moral values in themselv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tales delivered in an story-telling auditorium or theater have not so much exquisite and refined forms as distorted and deteriorated ones. Furthermore, when false interpretations of tale-performers added into the category of the texts of tales, the problems can be made worse.

This thesis is directly aimed at pointing out the problems concerned with th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tales through investigating the missing parts of a text in reading tales.

In case of oral folk tales, there can be discrepancy between the standpoint of a tale-performer and the contents of a tale. That's because in his delivery tale-performer can sometimes reveal some biased points of view toward the title-role character of a tale. In <'wise woman' folk-tales>, for instance, the tale-performer's personal sexual context can have an effect on its entextualization, therefore, treatments toward a woman are heavily accidental and momentary compared with the problem-solving woman. As he or she is not a creator but a herald of a text, any Tale-performer can

deliver the text in an irrelevant way or in a just opposite way to the original meaning.

In case of a written folk tale, the deliverer, who is not a creator, either, can have a strong possibility of doing 'tale-edit' according to his or her own purpose, thanks to the fact he or she is totally free from the perform-event. Accordingly, contrary to oral folk tales, written folk tales never undertake the process regarded 'mistakes.'

Seemingly, written folk tales contain highly devised, different meanings, intentionally revealing the problematic editions. *SamKukYouSa*(三國遺事), which is made up of a group of tales well organized according to individual parts, can be called the best model. The chapter *PiEun*(避隱) in *SamKukYouSa*(三國遺事), a tale unsuitable to its chapter, is awkwardly arranged in its chapter and thus allows the intention of the editor to be highlighted and shown to readers.

Key Words : Oral folk tale, Written folk tale, Tale-performer, Tale-editor, Entextualization, Discordance.